

정치인보다 탁월한 설교자 (The Preacher as Politician)

Kenton C. Anderson
(Preaching Magazine, 2025 년 겨울호)

정치와 설교

정치와 설교는 언제나 불편한 동반자였다. 나는 지금 북미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정치 캠페인이 끝난 직후에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설교자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든 간에 강단에서 교회를 이끄는 일은 매우 큰 도전이 되어왔다. 나는 늘 “설교자는 강단에서 정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왔고, 이 말은 이론적으로는 옳아 보이지만, 오늘날처럼 분열된 시대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을 절감한다.

설교자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정당 정치**의 방식은 아닐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권력의 역학과 관계**를 다루고 조율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의 정치적 차원은 피할 수 없으며, 우리가 전하는 설교의 성격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정의 #6)은 “정치”를 이렇게 정의한다. *“통제권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 정치 집단이나 모임 안에서 벌어지는 책략이나 술수.”* 이 얼마나 익숙한 말인가! 내가 섬겨왔던 가장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들조차 이런 책략의 요소가 어느 정도는 존재했다. 설교자로서 나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거나, 민감한 주제에 빛을 비추기 위해 말을 조심스럽게 골라야 할 때가 많았다. 나는 이 일을 주로 **목회적 사역**이라 생각하지만, 그 속에 정치적 요소가 배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설교는 무엇보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선언과 그분의 말씀을 풀어내는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설교는 목회자가 회중과 정기적으로 나누는 가장 공개적이고 영향력 있는 소통의 장이기에, 이는 곧 깊이 있는 **리더십 행위**이기도 하다. 설교는 단순히 교회를 다스리는 행위 이상의 것이지만, 그 이하라고 할 수도 없다.

목회자는 주간 설교를 통해 여러 가지 **리더십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설교는 회중에게 방향성을 제시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선거 유세 연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길을 드러내야 한다. 비록 교회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설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가 나아가야 할 입장과 방향을 지지한다.

또한 설교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나아가도록, 협력의 장을 형성하고 지지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정치의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공동의 비전에 동참하도록 부르는 일인데,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한다.

설교자는 또한 반대와 불만을 다루는 일을 맡는데, 이것이 때로는 정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지만, 때로 설교는 교회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한 **책망이나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성경 속 사도들도 이런 정치적 성격을 가진 사역을 서슴지 않았으며(예: 빌립보서 4:2), 그러나 항상 은혜롭고 사랑 어린 태도로 감행했다.

좋은 정치인은 자신의 일을 **공적 섬김**으로 이해한다. 좋은 설교자도 영웅적 지도자라기보다 **겸손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한다(베드로전서 5:1-4). 정치가 섬김이라면, 설교는 그보다 더욱 그러하다.

물론 정치란 우리의 설교 사명에 비해 훨씬 세속적이고 냉소적으로 보인다. 나는 젊은 시절 설교자가 되기를 꿈꾸던 때, 한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강단에서 내려와 결코 총리가 되려 하지 말라.”* 나중에 보니 그 말씀이 그분의 독창적 표현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말한다. *“설교자의 부르심을 버리고 왕이나 대통령이 되려 하지 말라.”* 처음에는 과장된 말이라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다. 사람의 정치가 미치는 영향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우리가 전하는 설교로 올바르게 다스리고 이끌어 가는 일은 **영원한 영향력**을 남길 수 있다.

나는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한다. 그러나 나는 어디에 참된 권세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이 땅의 의회와 정부가 추구하는 정치의 한계는 언제나 거룩한 열망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정치적 기도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켄턴 C. 앤더슨,
매니토바 오토번에 위치한
프로비던스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의 총장